

<2023년 사순절 신앙 캠페인>



선교적 삶
블레싱 40일

40 Blessing Days of
Missional Life



주 예수 교 회
Lord Jesus Korean Church
Presbyterian Church (USA)

선교적 삶 블레싱 40일에 초대합니다.

선교, 선교사란 단어를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도 선교는 특별한 사람이나 먼 나라에 가서 풀타임 복음전도자로 사역하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단지 먼 나라나 우리와 먼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교는 바로 우리의 삶의 사명이며, 선교지는 바로 우리의 삶의 장소인 것입니다. 떠나는 선교를 포함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바로 선교적 삶의 영역인 것입니다.

2023년도 사순절을 맞아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선교를 배우고, 함께 나누는 “선교적 삶 블레싱 40일”을 갖고자 합니다. 이번 선교적 삶 공동체 40일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가 선교지임을 깨닫고, 우리의 일상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의미와 구체적인 습관, 그리고 은사와 비전을 찾고자 합니다.

“선교적 삶, 블레싱 40일”에 주 예수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하며, 6주간 주일말씀과 목장모임, 그리고 삶의 실천을 통해 선교적 삶의 축복의 통로로 세상을 감동케 하는 주 예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선교적 삶으로, 선교적 교회로!!

김형주목사 드림



Based on the book “Surprise the World by Michael Frost”

선교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것이 연상되나요? 많은 그리스도인은 먼저 저 멀리 오지에서 남루한 모습으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지만 못하고 있다는 막연한 부담감과 죄책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럼 성경 속 그리스도인의 선교하는 모습은 어떠할까요? 골로새서 4:2~6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를 얻고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들 자신을 위한 기도는 많이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신자는 복음 전도자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외인(비신자)들에게 지혜롭게 행하며, 외인이 제기하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 (evangelists)는 ‘선포’하는 일을 하고, 신자 (believers)는 대답하는 일을 한다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접근 방법은 그야말로 로마 제국을 뒤바꿔 버렸습니다. 바울과 베드로 같은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다신교와 미신 신앙의 시대에 복음의 진실성을 변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많은 평범한 신자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서 로마제국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고 놀라게 했으며 더 나아가 세상에 진정성 있는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며 희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고, 가난한 자들과 굶주린 자들을 돌봄으로서 잔혹했던 로마 억압 아래서 누가 봐도 너무나 다른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들 중에 복음 전도자들로 부름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삶을 통해 의미와 감동을 주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소통 이론 가운데 “예측 가능성이 클 때, 효과는 미미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펼치는 자선 활동은 비교적 보편 화되어 있어서 세상을 놀라게 하지 못합니다. 어느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어떤 단체에 거액을 기부하거나 무료 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호스피스 운동을 한다고 해도 누구도 큰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이미 예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개인이 이기적인 세상의 원칙과는 다른 삶을 살 때 그들은 크리스천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 때 신앙을 나눈다면 열린 마음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할 때입니다. 이웃간의 소통과 관심이 메말라가는 일상 생활에서 먼저 다가가 친절을 베풀고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불편하더라도 이웃을 품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단지 개인에게만 던지는 도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인 공동체 안에서 함께 행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는 삶”, “세상을 감동시키는 삶”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선교적 삶 블레싱 40일”은 선교란 멀리 나가서 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고, 선교를 나가지 못해서 가지는 부담감과 죄책감을 내려놓고, 일상 생활에서 의 “선교적 삶”에 대하여 깨닫고 실천하고자 계획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선교적 삶의 다섯 가지 실천적 요소인 BLESS (Bless, Listen, Eat, Serve & Sent)를 살펴보고 연습하려 합니다.

Bless 나는 매일 내가 마주하는 사람을 축복한다.
그 중 최소한 한 사람은 우리 교인이 아닌 비신자여야 한다.

Listen 나는 최소한 주중 한번은

Eat 나는 공동체 40일 기간에 최소한 한 사람의 비신자와 식사를 한다.

Serve 마지막 주는 순식구들과 함께 세상에 감동을 주는 봉사를 한다

Sent 목장식구들이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며 일상생활에서의 선교사로 파송한다.

자 그럼 이제 열린 마음으로 일상 생활에서의 선교적 삶의 블레싱 40일을 찾기 위해 출발해 볼까요?



선교적 삶 블레싱 40일
40 Blessing Days of
Missional Life

Week 1 결속하기: 일상 생활에서 선교적 삶으로의 출발

Week 2 BLESS 축복하는 삶으로의 초대

Week 3 LISTEN 듣는 삶으로의 초대

Week 4 EAT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밥상 공동체로의 초대

Week 5 Serve 선교적 삶을 위한 섬김

Week 6 Sent 선교적 삶을 향한 파송



첫 번째 목장모임 나눔

결·속·하·기

일상 생활에서 선교적 삶으로의 출발



들어가며

어느 문화에서나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단지 먹고 마시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며 하나됨을 확인합니다. 특별히 공동체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영화에서 공동체의 운명이 걸린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함께 먹고 마시며 출정식을 준비하는 장면을 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공관 복음에서도 (마태·마가·누가) 출정식의 의미가 담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수난을 당하시기 전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 의식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흘리실 물과 피로써 하나되게 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서 전파할 수 있도록 결속시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최후의 만찬 모습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수난 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된 것 같이 제자들이 하나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요 17:1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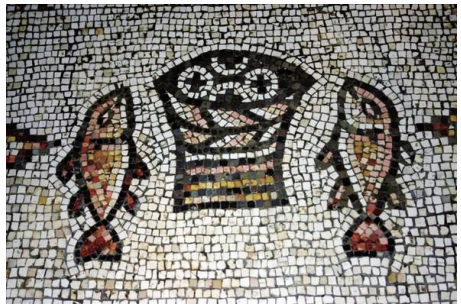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 전 먼저 우리 안에서 결속을 다지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개인적으로 선교적 삶을 살기위해 부름 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선교적 삶을 살 것을 주님께 요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찬양하기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 399)

우리 함께 걸어요 (복음성가)



말씀과 함께 깊이 생각하기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이 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 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 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 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마태복음 14:13~21



질문하기

1.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의식을 생각나게 하나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 예수님이 무리를 앉히셨을 때 어떠한 모습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3.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나누었을 때 어떠 한 경험을 했을까요?



적용하기

1.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13~21)을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자 출발하는 목장모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2. 주님 안에서 하나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아래의 두 가지 질문을 목장 식구들과 나누어 주세요.

- 여러분이 가장 따뜻했던 기억은 언제입니까? (행복했던 기억)
- 여러분이 가장 추웠던 기억은 언제입니까? (힘들었던 기억)



다음 주를 위한 준비

1. 각자 개인적으로 BLESS의 실천을 하기 위한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어 주세요.
(그 명단 중 반은 비신자로 채워주세요.)

1 _____	6 _____
2 _____	7 _____
3 _____	8 _____
4 _____	9 _____
5 _____	10 _____

2. 블레싱 40일 기간 동안 함께 식사 할 비신자의 명단을 만들어 주세요.

1 _____	4 _____
2 _____	5 _____
3 _____	6 _____

3. 블레싱 40일 마지막 주에 함께 섬길 곳을 생각해 주세요.



두 번째 목장모임 나눔

Bless

축복하는 삶으로의 초대



들어가며

믿음이란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일회성 행동이 아니라 일련의 믿음 체계, 즉 일종의 습관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궁극증을 불러 일으키고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선교적으로 살아가기’도 믿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교적 삶을 실천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구체적인 습관들을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다섯 가지의 습관(Bless, Listen, Eat, Serve & Sent) 중에서 먼저 ‘축복하기’(Bless)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축복이란 단어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축복(Bless)의 어원인 “다른 사람의 팔에 힘을 보태준다”는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팔에 힘을 실어 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을 덜어 주는 것일 수도 있고, 상대방의 기를 살려주거나 고통을 완화시켜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하기위해 우리는 큰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또한 지극히 사소한 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는 매일 우리가 마주치는 사람들 그리고 한 주에 적어도 한 명의 비신자를 축복하는 삶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1. 당신의 생활 속에서 ‘당신의 팔에 힘을 보태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2. 우리가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함께 찬양하기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찬 488)

야곱의 축복 (복음성가)



말씀과 함께 깊이 생각하기

아무 일에도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3~4



질문하기

1.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Bless”를 실천하면서 유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 입니까?



적용하기

1. 목장식구들과 함께 일상 생활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5가지 습관 만들어 보십시오.

예) 1. 먼저 웃으며 인사하기 2. 먼저 안부 묻기 3. 먼저 양보하기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운전할 때, grocery market에서 등) 4. 칭찬하기 5. 다른 사람이 먹은 음식 치워주기

2. 블레싱 40일 기간 중 개인적으로 비신자를 축복할 수 있는 일을 최소한 한가지 이상 구체적으로 정해서 시작하십시오.

예) 베이비시터 해 주기, 다른 사람의 음식 값이나 커피 값 내주기 (random act of kindness), 손편지와 자그마한 선물 주기 등



다음 주를 위한 준비

1. 블레싱 40일 기간 중에 함께 식사할 사람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목장 식구들과 나누어 보십시오. (사람, 장소,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가 등등)



세 번째 목장모임 나눔

Listen

듣는 삶으로의 초대



지난 주 Follow-up

지난 주에 실천을 약속했던 Bless의 부분을 점검하겠습니다.

1. 목장모임에서 함께 정한 '일상 생활에서의 축복'의 약속을 잘 지키셨나요? 그 약속들을 실천할 때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2. 지난 한 주 동안 개인적으로 비신자를 축복하는 일을 시작하셨나요? 실천할 때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들어가며

일상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 지속적으로 귀 기울여야 하는 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소리를 듣는 것과 또한 비신자들 (정확히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이 필요한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에서 힘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그 분의 음성을 듣고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또한 그것은 신앙 생활에서 늘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반면 비신자를 대할 때에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들의 소리를 듣는 것에는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일상에서의 선교적 삶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비신자들에게는 무언가를 가르치고 논쟁하기에 앞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의 귀가 그들의 삶에 열려 있을 때 비로소 복음은 전달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삶, 비신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함께 찬양하기

주 음성 외에는 (찬 500)
시편 40 - 하나님의 음성을 (복음성가)



●
말씀과 함께 깊이 생각하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26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야고보서 1:19

적용하기

1.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평소에 많이 해보지 않은 조용한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이번 주에 각자 실행해보며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습관을 가지는 훈련을 시작하세요.
2. 각자의 삶에서 비신자에게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목장 안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1. 둘이 짝을 지어 주세요.
 2. 아래의 질문을 가지고 서로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아래 인터뷰 질문에는 없는 본인의 질문을 추가해 주셔도 좋습니다.)
 -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고 당신만의 독특한 개성이나 배경은 무엇입니까?
 - 당신의 취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그 취미를 가지게 되었나요?
 - 무인도에 가게 된다면 꼭 가지고 갈 물건 3가지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다시 인생을 처음부터 살 수 있다면 하고 싶은 것 3가지만 말해 보세요.

- 당신의 재산 목록 1위는 무엇입니까?
- 살면서 가장 당황했던 기억은 무엇입니까?

3. 다시 함께 모여서 서로 인터뷰 한 내용을 나눕니다. 이때 상대가 답변한 내용을 본 인의 이야기인 것처럼 나누도록 합니다. (예) 김철수 집사님이 김영희 집사님을 인터뷰 했으면, 김철수 집사님 차례에 “나는 김영희 입니다”라고 소개하고 “나 김영희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라고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를 위한 준비

1. “성령의 음성 듣기” 방법을 실천해 보고 그 경험을 다음 주에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눠 주세요.
2. 평소에 얼굴은 봐 왔지만 깊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을 (되도록이면 비신자로) 정해서 질문과 경청을 통해 그 사람을 알아가는 기회를 가져 보세요.

●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 ●

1. 시간을 작정하여 따로 떼어놓으라

Gym에 갈 때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운동을 하려다가 금방 지쳐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하기 보다는 시간을 정해서 조금씩 천천히 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하루에 몇 시간씩 한다는 생각보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가지는 소중한 시간을 미리 준비하세요.

2. 집중에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라

조용한 장소를 정하고 촉각, 시각, 후각, 미각, 청각에 방해하는 요소를 치우십시오. 조용한 곳일수록 성령님의 음성이 훨씬 잘 들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저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마 6:6). 조용한 가운데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하십시오. 손가락을 모아 깎지를 끼거나, 팔짱을 끼든지, 혹은 양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그 위에 앉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20분 이상 앉아 계십시오. 너무 짧게 끝내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3. 하나님께 내어 드려라

목상을 할 때 성령님께 무언가를 질문하고 말씀드리기 보다 그 분의 임재를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특히 결과 지향적인 사람이라면 지식이나 지혜, 위로나 용기, 또는 현재에 필요한 무엇을 달라고 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그 분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의를 집중하기 위해서 ‘집중 기도’에서 쓰는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8장 13절을 응용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시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아버지”, “주여” 등등 도움이 되는 용어를 한 가지 선택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주문을 외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지 기도를 돕기 위한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와 문장을 천천히 부드럽게 반복하며 흠어진 생각과 초초한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집중 기도를 할 때 떠오르는 생각을 붙들지 말고 계속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4. 하나님이 알려 주시는 것들을 따르라

성령님께서서는 이러한 목상의 시간을 통해 축복해야 하거나 식사를 함께해야 할 사람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우 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을 따른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성령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비신자들에게 다가가는 모습, 그들을 감동시키고 선교적인 삶을 사는 구체적이고 세세한 방법 은 각자의 상황 가운데에서 큰 그림은 줄 수 있어도 모두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목장모임 나눔

Eat

사랑은 나누는 따뜻한 밥상 공동체로의 초대



지난주 Follow-up

1. 지난 주 각자가 실천한 “성령의 음성 듣기”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2. 지난 주 각자가 실천한 “비신자의 이야기 경청하기”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들어가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치셨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들을 초청하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동참을 위해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설교, 가르침, 치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회개, 메시지, 전파, 설교, 가르침, 치유처럼 주목을 받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구석구석 돌아다니시며 사람들 특히 죄인이라 불리는 자들과 밥상을 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장대하고 원대한 도래를 밥상이라는 소박한 모습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밥상 공동체’라고 지칭했습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사랑의 표현이었고 그들을 향한 따뜻하고 아름다운 관심이었습니다.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중 한 장면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도 밥은 사랑과 관심의 표현입니다. 대학교에 갓 들어간 한인 2세 대학생이 본인 교회 EM 목사에게 한인 1세인 우리 아버지는 가끔 전화하셔서 고작 하신다는 말씀이 “밥은 먹었나?”라며 불멘 소리를 합니다. 그 학생이 아버지께 진정으로 듣고 싶었던 말은 “사랑한다”, “보고싶다” 였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아버지의 “밥은 먹었나?”의 뒤에 올려퍼지는 “사랑한다! 보고싶다!”라는 말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밥은 음식 그 이상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에는 단지 음식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을 알기 원하고 사랑과 우정을 나누고 싶다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얼마 전 옛 추억의 향수를 불러 일으키며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보면 주인공 덕선이네 가정 밥상 앞에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멋지고 화려한 밥상은 아니지만 소박한 밥상 앞에서 가족들의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서로 먹겠다고 싸우기도 하고 밥상이 이게 뭐냐고 투정도 하지만 반찬을 얹어주며 사랑도 표현합니다.

한 연예인이 심한 가정불화를 겪으면서 왜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인지 근본 원인에 대해 꼼꼼히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가족과 소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소인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을 이룬지 15년이 넘었지만 가족과 함께 밥을 먹은 횟수는 불과 다섯 번 미만이었다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식탁 앞에 마주하여 먹는 밥상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그 소박해 보이지만 사랑이 가득한 밥상으로 이웃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찬 257)
 주 다스리시네 (복음성가)



말씀과 함께 깊이 생각하기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2:13-17



질문하기

1. 이 본문이 쓰여질 당시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요즘 시대에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는 그 당시에 비해 많이 달라졌을까요?

2.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나요?



다음주를 위한 준비

1. 비신자와 식사를 함께하고 다음 주에 그 경험을 목장 식구들과 나누어 주세요.

2. 다음 주에 목장 식구들과 섬길(serve) 때에 어떻게 세상을 축복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주세요.



다섯 번째 목장모임 나눔

Serve

선교적 삶을 위한 섬김



지난주 Follow-up

비신자와 함께 식사한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들어가며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일상 생활에서 세상에 감동을 주는 선교적 삶의 습관 만들기를 실천했습니다. 이제 그 습관을 완성하는 연습들로 목장식구들과 세상에 나가 봉사하고 또 함께 모여서 이러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도 만들어 보려 합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들보다 앞서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먼저 받아들였고, 그 복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선교적 삶을 실천함으로써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선교적 삶에 대해 궁금증을 가졌고 그것에 감동되어 결국 그 복음을 감격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려면 우리들도 선교적 삶을 일시적으로 살아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지속적으로 실천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도 우리를 통해 계속 전파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 288)

주님의 시간에 (복음성가)



말씀과 함께 깊이 생각하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시니라

에베소서 2:10



질문하기

1.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지음 받았다고 하나요?
2.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나에게 주신 은사와 열정은 무엇인가요?
(가정, 일터, 교회 등)



기도하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나에게 주신 은사를 찾고, 그 은사를 내 삶에 사용하는 선교적 삶이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 지난 4주간의 경험 나누기

1. 지난 4주 간 선교적인 삶의 습관을 만들면서 가장 보람되고 기뻐던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2. 4주 동안 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개인적으로나 혹은 목장 식구들과 함께하고 싶은 세상에 감동을 주는 선교적 삶의 습관에는 또 어떠한 것이 있나요?

● 결단하며 나아가기

1. 각자 지속적으로 실천할 선교적인 삶의 습관 리스트를 만들고 목장 식구들과 나누어 주세요.

2. 목장식구들과 지속적으로 해 나갈 선교적인 삶의 습관을 나누고 정해 주세요.
(예: 3달에 한 번 목장 모임 때 goodie bag을 함께 만들고 그것을 각자 가지고 가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 어느 봉사 단체를 정해서 일 년에 두 번 함께 봉사하기 등)

선교적 삶을 위한 개인적 습관 리스트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목장 식구들과 지속적으로 해 나갈 선교적인 삶의 습관



여섯 번째 목장모임 나눔

Sent

선교적 삶을 향한 파송 (비전 선언문)



지난주 Follow-up

지난 한주간 실천했던 나의 선교적 삶 습관들에 대하여 나누어 보세요.



들어가며

지난 5주간 선교적 삶 블레싱 40일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로 내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선언하며, 주님의 제자로 파송받는 주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로 예수님께 쓰임 받은 나귀처럼 우리도 주님께 쓰임 받는 복음의 도구가 되길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래는 실제로 블레싱 40일을 통해 쓰신 비전 선언문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의 빈곤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고 삶의 희망을 주고 싶다. 그 수단으로써 나눔의 삶에 열정을 다하는 것이 나의 비전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가지고 잘 자라도록 정서적·영적·재정적으로 자원을 제공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세우셔서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이 되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를 주도록 하셨음을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원을 제공하여 그들이 사역하는 데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사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한다”

“내게 주신 소명과 특별한 은사의 결과로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한 믿음의 모델이 되는 가정을 세우는 데 나의 삶을 바친다. 나는 아내가 자신의 사역의 자리를 찾고 성장하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가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나는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격려하고 또한 그들에게 힘을 줄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에 중심을 둔 지역 교회들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과, 지도자들에게 멘토가 되고 힘이 되는 관계적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는 일에 헌신할 것이다. 나는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천 곳의 교회와 천 명의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주고자 한다.”

“남은 삶 동안,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놀라운 일을 완수하고자 노력하는 팀을 세우는 데 헌신하고자 한다. 재정이든 공적 영향력이든 경험 적 지혜이든 또는 책임 의식이든, 내가 가진 것으로 그 팀에 기여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만 나올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에 기대어 행 할 것이다.”

비전은 내가 원하고, 되고 싶은 큰 꿈이 아닙니다. 비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 삶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여 나의 은사와 나의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을 통해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파송받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 함께 찬양하기

온 세상 위하여 (찬 505)

가서 제자 삼으라 (복음성가)



● 말씀과 함께 깊이 생각하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19~20

● 질문하기 / 나의 비전 찾기

1. 앞으로의 삶을 생각할 때 가장 집중하고 싶은 영역은 바로 _____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_____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사용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3. 나의 활동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가장 기여하는 것은 _____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여러가지 이유로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내가 진짜 해야 할 일은 _____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5. 나는 사역에 관한 내용을 나눌 때 나의 삶을 _____을 하는 데 사용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각자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이 명하신 선교적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도록 서로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며 기도해 주세요.



비전 선언문 만들기

1. 개인 비전 선언문 초안 작성하기 (현재 나를 향한 최고의 이해)
 - 이전부터 당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식에 기초하여,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비전 선언문 작성하기 (생각하고, 다음 장에 작성해주세요)
 - 이름 (자신의 이름을 적습니다.)
 - 성경 구절 (자신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적습니다.)
 - 나의 비전 (비전 선언문을 다음장에 적습니다.)
 - 목장 식구들과 서로 나누고, 기도합니다.

나의 비전 선언문 (Vision Statement)

* 이름:

* 내가 좋아하는 성경구절

* 나의 선교지

* 나의 구체적인 선교적 삶 비전 계획



선교적 삶 블레싱 40일
40 Blessing Days of
Missional Life

Lord Jesus Korean Church
Presbyterian Church (USA)

10201 Robious Road, Richmond, VA 23235
(804) 560-7500

www.ljkc.org